

98. 직업상담원에서 발생한 섬유근육통증후군, 다발성 근막염, 만성피로증후군

성별 여 **나이** 32세 **직종** 사무직 **업무관련성** 낮음

1. 개요: 근로자 이○○은 2000년 9월 15일에 직업상담원으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실업인 정업무를 수행하던 중 동년 7월 Y의료원에서 섬유근육통증후군, 2005년 7월 로컬병원에서 근막동통증후군, 다발부위의 근막염, 만성피로증후군을 진단받았다.

2. 작업내용 및 환경: 근로자 이○○은 2000년 9월 15일 입사이후 현재까지 고용안정센터에서 피보험자 관리, 청소년 직장체험, 실업인정, 조기 재취업수당의 업무를 하었는데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였다. 근골격계 유해요인 역학조사상관찰적 기법의 인간공학 적 평가에서 위험도가 낮았고, VDT 작업관련 Checklist를 이용한 인간공학적 평가상, 전체 35개 문항 중에서 11개 문항이 현재 VDT 작업에서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한 권고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. 위험요인에 대한 주요 항목으로는 작업속도 및 작업량 조절여부, 특정시간 및 특정일자 집중작업, 작업대 높이 조절, 모니터 위치, 앉은 면 폭과 길이, 등반이 지지, 어깨와 팔의 위치, 손목 굴곡과 신전, 허리 지지, 문서 홀더 사용, 전화사용 보조장비, VDT 교육, 스트레칭 등이 있었다.

3. 의학적 소견: 상기 근로자는 2001년 이후 입내원 수진자료에 의하면, 2004년도 2월부터의 ‘어깨, 손목의 염좌 및 긴장’ 상병으로 치료받은 병력 이외에 호흡기계, 소화기계, 비뇨기계, 산부인과계 질환으로 치료를 수차례 받았다. 2002년 7월 결혼을 한 후 2003년 12월과 2004년 11월에 계류 유산으로 수술을 받았다.

4. 결론: 근로자 이○○의 섬유근육통증후군, 다발성 근막염, 만성피로증후군은

- ① 직업상담원으로서 작업(단말기 입력작업, 수기기록 및 상담 등)과 작업환경에 대한 평가 결과에서 관찰적 기법의 인간공학적 평가에서 위험도가 낮고, VDT 작업에 한정된 평가에선 중간 정도의 위험과 일부 작업조건에서는 권고기준을 벗어나고 있으나
- ② 직업상담원으로서 업무의 작업기간, 작업자세의 위험도 수준, 컴퓨터 입력작업의 작업시간, 기타 VDT 작업공간상의 위험도 등을 고려할 때 근골격계 질환을 발생할 정도의 위험수준이 아니며,
- ③ 의학적으로 볼 때 진단명의 불확실성, 질병의 경과와 오랜 치료기간 및 치료에 대한 반응, 그리고 반복유산 등을 고려할 때 비직업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므로

근로자 이○○의 섬유근육통증후군, 다발성 근막염, 만성피로증후군이 직업상담원으로서 업무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었다.